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배점자(아네스)

원주교구 보건사목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생활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러 제 나이 60대 후반 이젠 은퇴 나이. 하느님께서는 어찌나 오묘하신지 이제 그만 할까 막연한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도 못 한 큰 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을 주시네요. 상을 받고 이 글을 쓰려는 순간, 함께 고생한 봉사자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오르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봉사를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한 것이기에, 또한 상을 받으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었기에 제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봅니다.

원주교구는 호스피스 병동이 이제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 다니시면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매달 미사를 드리고 계시는 신부님과 수녀님, 봉사자 3명이 1조로 나누어 호스피스 병동 가족을 내 가족처럼 지금 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주님 부르심에 “네~” 하고 달려갑니다.

어느 날, 그날도 병동 가족을 만날 생각에 행복한 웃음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 생각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환자분들을 사랑하고 있기에, 언제나 호스피스 병원 봉사를 떠날 때마다 “당신은 봉사할 때는 표정이 달라, 정말 대단해, 우리 아네스는 천사야,” 언제나 나에

게 희망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남편이 위암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해 뛰어다녀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사랑하는 제 남편이 암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지금까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비롯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저의 작은 봉사에 주님께서는 큰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곧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약물 치료나 항암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큰 교통사고가 났고, 또 얼마 후에는 뇌졸중까지 게다가 저는 심장판막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견딜 만큼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던가요. 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남편은 완쾌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심장 수술을 무사히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총이겠지요.

아산 병원에서 한 자매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방암 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주님께서 보내신 걸까요? 원주 치악산 황골에서 이 환자분을 다시 만나서 3년간 가정 호스피스 봉사를 했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과 순탄치 않았던 가정생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언제나 웃으며 “언니 왔어요?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먼저 다가와 주는 ○○ 아우

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봉사가 중단되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언니, 언니가 있어 넘 행복했어요.” 순간 얼마나 미안하고 보고 싶은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공기 맑은 강원도 황골에 내려와 쉬었다가 다시 항암 치료, 또다시 항암 치료. 이 고통 속에서도 늘 고맙다고 “밥 한 번 같이해요.” 시간 내어 달라던 ○○. 친구 같던 ○○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인 저는 다시 한번 ○○을 통해, 봉사란 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환자로 부터 채워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분의 환자도 생각납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위해 아산 병원 가는 날, “언니 토요일에 만나요. 이제 다 나왔어요.” 웃으면서 손 흔들며 차에 오른 △△자매. 내일이면 오는 날인데 늦은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울먹이면서 △△가 하늘나라 갔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원주에서 처음 만난 예쁘고 젊은 유방암 환자

였습니다. 몇 해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언니 나는 아픈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기 싫어, 언제나 예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가발을 쓰지만, 남편은 아직도 몰라요.” 언제나 아픈 몸으로 남편의 식사도 꼭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자매의 말.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병동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함이 느껴지는지요. 그들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볼 때, 동료 봉사자분들과 저는 호스피스 봉사자임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의 기쁨만큼 저 자신의 행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 주신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떠난 환우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를 기도드릴게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 상반기 신입회원 명단

▶ 일반회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박정주, 임진아
- 원주교구 보건사목 : Sr.이문진
- 부산성모병원 : Sr.문임순, Sr.유수진, 하미혜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박유향, Sr.백정희
- 순천 성가롤로병원 : 김정미, 배정원, 서연주, 장현화, 정명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 찬조금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Sr.조은경

박연심